

나르시시즘과 정체성이 학교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

배기동 김소희 박선웅[†]

고려대학교

본 연구는 나르시시즘과 정체성이 학교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고등학생 30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여자들은 학교폭력이 명확한 상황과 장난과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 관한 시나리오 중 하나를 읽고, 학교폭력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들에 답하였다. 그 결과, 나르시시즘과 정체성 그리고 학교폭력의 명확성 여부 사이의 삼원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폭력과 장난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정체성 발달의 부정적 측면인 정체성 결여와 교란된 정체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나르시시즘이 높을수록 학교폭력에 대해 더 관대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 맥락에서 발생하기 쉬운 상황을 사용하여 청소년기 주요 발달 과제인 정체성이 나르시시즘과 상호작용하여 학교폭력 인식의 관대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정체성 발달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학교폭력에 대한 관대한 인식에 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나르시시즘, 정체성, 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 인식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박선웅,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3290-2868, E-mail: sunwpark@korea.ac.kr

Copyright ©2024, Korean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개인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사회의 존립 및 발전의 핵심이기에 고도화된 사회일수록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보내는 아이들은 교사, 친구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하게 발달해 가지만 때때로 갈등 상황에서 부정적인 모습을 표출하기도 한다. 그중 학교폭력은 한 개인에게 있어 신체적 피해는 물론, 청소년기를 넘어 초기 성인기의 우울 및 자살 등 심리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박애리, 김유나, 2023) 나아가 연인관계, 직장 등 사회의 여러 장면에서의 폭력으로도 이어지는 중요한 사건이다(McDade et al., 2018; Youn & Atteraya, 2016).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폭행, 감금, 성폭력, 사이버 폭력 등 형법상에서 규정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등 힘의 우위에 있는 개인이 상대적 약자에게 반복하여 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성문주, 2020; Gumpel & Meadan, 2000; Miller & Kraus, 2008). 과거의 학교폭력은 또래에 비해 힘이 세고 불량한 소수의 아이들이 보통의 학생을 대상으로 심한 장난을 치거나 용돈을 갈취하는 과정 등에서 유, 무형의 폭력을 행사하는 정도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가해 계층이 점차 평범해지고 연령은 낮아졌으며 그 수범이 다양해지고 있다. 교육부가 2022년에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응답률은 1.7%로 2021년 대비 0.6% 증가하였으며 지난 5년 간의 피해 응답자 수는 코로나19 시기의 일시적 감소세를 제외하고 증가추세를 보인다. 또한 2022년에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14,436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13,584명보다 증가하였고, 2022년 한해 학교폭력으로 검찰에서 기소하거나 재판 없이 벌금형을 선고한 건수가 2,278건이나 될 만큼 학교폭력은 심각해지고 있다(경찰청, 2022).

학교폭력 문제의 공론화와 중대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예방 필요성에 관한 인식 제고 등과 함께 학교폭력 가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루어지고 있다(McDade et al., 2018; Youn & Atteraya, 2016). 법적, 제도적 측면의 보완 및 발전(김후년, 2022; 박상식, 2021; 박지현, 임기호, 2021; 서민수 등, 2021; 이덕난, 유지연, 2021)뿐만 아니라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상황 해석과 관련된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탐색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김재엽 등, 2015; 오정아 등, 2016; 유선이, 2019; Wright & Li, 2013; Xia et al., 2018). 이러한 흐름에 더해 본 연구는 친구 관계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상황을 가정하여 개인의 부정적 성격 특성 중 하나인 나르시시즘(Paulhus & William, 2002)과 심리사회적 발달에서 중요한 과업이자 개인의 긍정적 특성 중 하나인 자기정체성(self-identity; 이하 정체성)이 학교폭력 가해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학교폭력 가해와 관련된 기존 연구 변인들

폭력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나 태도는 실제 폭력행위를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변인이다(Josephson & Proulx, 2008; O'Keefe, 1998; Stith & Farley, 1993). 학교폭력 가해 행동에 관한 메타분석에서(최운선, 2005; Huang

등, 2023) 폭력에 대한 인식이 학교폭력 가해 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 변인으로 확인되었음을 볼 때, 학교폭력 가해와 관련된 개인의 인식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중 폭력허용도는 학교폭력 가해 인식을 다룬 선행연구들에서 자주 등장하는 변인으로, 폭력의 정당성을 수용하는 태도로 정의된다(안해지, 이창배, 2023; 오정아 등, 2016). 폭력에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청소년들은 장난을 빙자하여 또래를 때리거나 따돌린 경험이 많고(안지영, 2016; 오정아 등, 2016; Xia et al., 2018) 사이버 공간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채팅으로 욕설 또는 악성 댓글을 달고 지인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등 사이버 폭력 가해 행동도 많이 하며(김경은, 윤희미, 2012) 친구의 물건을 훼손시키거나 훔치는 등의 비행 경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Uysal et al., 2019).

공격신념 역시 학교폭력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변인이다. 공격신념이란 공격적 행동의 수용 가능성과 불가성에 관한 개인의 인지를 의미하는데(Huesmann & Guerra, 1997), 폭력이나 공격행동에 대한 정당성 인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 공격행동이 가치 있는 도구라는 믿음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폭력허용도와 구별된다(손지영, 2003; 정유진, 유미숙, 201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격신념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고(유선이, 2019) 타인에게 신체적 위협 및 공격을 가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공격행동 빈도가 높았으며(Andreas & Watson, 2009), 채팅이나 이메일을 통해 타인에 대한 헐담 및 모욕 등 사이버 폭력 가해 행동 역시 많이 하였다(Wright & Li, 2013). 그러나 선행연구들의 경우, 폭력허용도나 공격신념 등을 자기보고

식 척도로 측정하고 평소 공격성이나 가해 경험 역시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김경은, 윤희미, 2012; 안지영, 2016; 오정아 등, 2016; Andreas & Watson, 2009; Xia et al., 2018).

본 연구는 학교폭력이라는 주제를 다룸에 있어 크게 세 가지 면에서 기존 연구와 다른 접근을 취하고자 하였다. 첫째, 자기보고식 척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나리오 조작을 통해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려고 하였다. 둘째, 단순히 폭력행위 자체만을 측정하지 않고 그와 관련된 변인, 즉 피해 학생이 느낄 불쾌감과 스트레스 등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폭력허용도나 공격신념처럼 폭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변인 대신, 나르시시즘과 정체성이라는 개인차 변인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나르시시즘과 학교폭력

나르시시즘은 지나치게 부풀려진 자기평가와 특권의식, 타인에 대한 폄하와 착취적 성향 등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차 변인이다(Ackerman et al., 2011; Park & Colvin, 2014, 2015; Raskin & Novacek, 1989). 나르시시즘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공감은 적고 분노와 적대감은 많다(백승혜, 현명호, 2008; 이준득 등, 2007; McCann & Biaggio, 1989) 폭력에 관한 연구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변인이다(신다혜, 이인혜, 2021; 이세연, 유미숙, 2010). 그중 학교폭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나르시시즘이 높은 청소년들은 스스로 평가한 자

신의 공격성과 주변 친구에 의해 평가된 공격성 수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arry et al., 2017), 목적을 지닌 수단으로서의 공격성을 뜻하는 주도적 공격성(proactive aggression; 엮혜선, 이은주, 2014)과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공격성을 의미하는 반응적 공격성(reactive aggression; 이홍, 김은정, 2012)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arry et al., 2015).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나르시시즘이 높을수록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 등 직접적인 공격성과 분노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Bushman & Baumeister, 1998; Donnellan et al., 2005).

높은 나르시시즘은 실제 학교폭력 가해 행동과도 정적인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우준, 2013; Fanti & Henrich, 2015; Farrell et al., 2020). 나르시시즘이 높은 청소년은 타인에 대한 놀림, 뒷담화 등과 같은 언어폭력과 따돌림 및 신체적 폭력 등의 가해 경험이 많았으며(고수연, 2023; Sargeant, 2013; Thakkar et al., 2020),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원치 않는 글이나 그림을 전송하는 등 사이버 상에서의 괴롭힘 경험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수연, 2023; Fan et al., 2019; Sargeant, 2013). 해외에서 발생한 학교 내 총기난사 사건들에 대한 연구에서도 나르시시즘의 연관성이 언급되었는데(Bushman, 2018), 총격사건 가해자들을 분석한 결과 우월감 등 나르시시즘 성향이 잠재적 위협요인(Hoffmann et al., 2009; Langman, 2009)으로 나타났고 일부 가해자들은 “나는 무엇이든지 믿게 만들 수 있어”, “스필버그 등 감독들은 이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거야”, “우리 둘만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야” 등 나르시시즘을 측정하는 나르시시즘 성격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Raskin & Terry, 1988)의 문항과 유사한 맥락의 발언을 하였다(Twenge & Campbell, 2003).

또한 나르시시즘은 폭력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도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데(배기동 등, 2023; 정오영, 장석진, 2021; Blinkhorn et al., 2016), 나르시시즘의 특성 중 자기과시와 권위주의 그리고 우월감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신체적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rdem & Şahin, 2017). 이는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같은 나르시시즘 특성이 학교폭력 행위를 더 쉽게 용인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나르시시즘은 학교폭력 가해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체성과 학교폭력

정체성이란 삶에 방향성과 의미를 제공하는 내면화된 목표나 가치에 기반한 명확한 자기규정으로 정의된다(문현 등, 2023; 윤가영 등, 2022; Waterman, 1984). 즉 정체성이 잘 형성된 사람은 자신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잘 인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가치를 중심으로 삶을 이끌어간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체성 수준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고 우울과 불안 수준은 낮으며 삶의 만족과 같은 심리적 웰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선웅 등, 2023; 윤가영 등, 2022; Hardy et al., 2013; Luyckx et al., 2013; Park et al., 2023). 또한 분노와 관련된 신경증과는 부적으로, 우호성과는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으며(Bogaerts et al., 2021) 문제 상황 직면 시 회피하기보다는 해결에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rettenauer, 2005; Park & Moon, 2022).

청소년기 주요 발달 과업 중 하나인 정체성은 학교 맥락 속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로 형성되고 이에 기반한 개인의 인식이 학교 장면에서 언어적, 신체적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교폭력 연구에서 변인으로 자주 다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정체성과 학교폭력을 다룬 선행연구는 공격성을 변인으로 탐색하였는데(김재우, 이지훈, 2017; 박소윤, 2017; 전수영, 2018; van Hoof et al., 2008), 정체성 혼미 수준이 높은 경우 타인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같은 사회적 공격성은 물론 몸싸움 등 신체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chwartz et al., 2015). 반면 높은 수준의 정체성을 가진 개인은 타인에게 따지거나 트집 잡기, 친구를 고의로 무시하기 등과 같은 공격성이 낮게 나타났다(박소윤, 2017; 전수영, 2018; Kamasz, 2014; van Hoof et al., 2008). 실제 가해 행동을 변인으로 측정된 연구에서는 정체성 수준이 낮을수록 집단 따돌림 가해 행동(장미향, 성한기, 2007)과 사이버 폭력 가해 행동 경험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Geng et al., 2022) 정체성 결여는 학교 생활에서 타인에 대한 조롱 등 언어폭력 및 신체적 폭행과 정적으로, 확고한 정체성은 부적인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Branch, 20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나르시시즘과 더불어 정체성이 학교폭력 가해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구체적으로 정체성 발달 정도가 나르시시즘과 학교폭력 가해 인식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나르시시즘과 학교폭력 가해 인식, 그리고 정체성의 조절효과

앞서 언급했듯, 나르시시즘은 지나치게 부

풀려진 자기상을 바탕으로 사회적 인기나 존경을 추구하는 성향이다(Ackerman et al., 2011; Raskin & Novacek, 1989). 사람들 사이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갖기 위해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은 또래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옷을 입기도 하지만(한정민 등, 2016),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타인을 무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Park & Colvin, 2015; Rodkin et al., 2013). 오늘날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자가 다수의 또래들로부터 리더로 인식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신희영, 2019),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은 학교폭력 역시 자신의 자기상을 높게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체성이 불명확한 청소년일수록 또래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감을 획득하는 성향이 있다. 스스로에 대한 다양하고 깊은 탐색을 통해 자신만의 가치체계를 형성하지 못해 또래 압력(peer pressure)에 취약하고 또래의 가치와 기준에 의지하는 것이다(Berzonsky, 2003). 실제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정체성 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 압력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Dumas et al., 2012; Forney & Ward, 2019). 이런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나르시시즘과 정체성 발달이 모두 높은 청소년에 비해 나르시시즘은 높지만 정체성 발달은 낮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기 위해 폭력에 더 관대할 수 있다. 즉 학교폭력에 대한 나르시시즘의 영향이 정체성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나르시시즘과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없다. 대신 정체성과 유사한 변인으로 이해되는 자기개념 명확성과 나르시시즘과의 상

호작용을 살펴본 연구는 일부 존재한다. 자신에 대해 얼마나 내적으로 일관되며 시간적으로 안정적인 개념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Campbell et al., 1996) 자기개념 명확성은 자기(self)를 설명하는 하나의 요소라는 점과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체성과 많은 공통분모를 갖기 때문에 본 연구의 가설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지능 테스트에서 부정적 피드백을 받은 대학생의 공격성을 확인한 Stucke와 Sporer(2002)의 연구에서는 나르시시즘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나르시시즘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상호작용은 유의했다. 구체적으로, 나르시시즘이 높고 자기개념 명확성 수준이 낮은 경우에만 높은 수준의 공격성이 나타났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나르시시즘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주효과와 함께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경우 나르시시즘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은 경우에는 나르시시즘 수준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강선영, 홍혜영, 2012). 분노를 변인으로 한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는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고 나르시시즘이 높을 때 분노를 직접 표출하는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김혜경, 2010; 임지영, 2011).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연구의 경우, 결과에 대한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자기개념 명확성 척도(Campbell et al., 1996)는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10문항이 역문항으로 작성되었다. 자기개념 명확성 척도가 역채점 문항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척도의 점수가 개인이 가진 자기개념이

불명확한 정도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명확한 정도를 나타내는지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이 자기개념의 명확성에 따른 영향인지, 불명확성에 따른 영향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기개념과 정체성 발달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 자기개념 및 정체성 척도(Self-Concept and Identity Measure; Kaufman et al., 2015)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 척도는 탐색과 전념 패러다임 속에서 정체성 발달 과정을 측정할 수 있는 기존 척도들(Luyckx et al., 2008; Marcia, 1966)과 달리 정신병리적 이론에 기반하여 정체성 발달과 관련한 3가지 상태를 하위요인으로 측정한다. 확고한 정체성(consolidated identity)은 정체성이 성공적으로 형성되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과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에 대한 인식이 있고 자기연속성이 잘 유지된 상태이다. 정체성 결여(lack of identity)는 자기상(self-image)의 부재로 인해 자신의 내면이 비어 있다고 느끼는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교란된 정체성(disturbed identity)은 자신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있지만 개인이 처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 하위요인별로 분석하여 어떤 하위요인이 학교폭력 인식의 관대함과 나르시시즘과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상황의 모호성과 학교폭력 인식

교육부에서 주관한 202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의 44.5%가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하고, 가해자 중 65.8%는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깨달은 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폭력 가해가 잘못된 행위라는 인식은 있으나 자신의 행위는 폭력이 아닌 장난이라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과 장난과 폭력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는 최근의 학교폭력 양상을 보여준다(교육부, 2022; 이승현 등, 2014). 이러한 결과는 최근 학교폭력의 가해 계층이 평범해진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명확한 상황과 장난과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을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사람의 행동이나 의도 예측에 있어 개인의 특성과 상황의 영향력을 상호보완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Funder, 2006).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개인 특성과 상황 사이의 상호작용이 개인의 행동이나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김세현 등, 2017; Bushman et al., 2003; Debusscher et al., 2017; Ozimek & Förster, 2017; Palmer et al., 2017). 한 예로, 김세현 등(2017)은 외도 의도에 있어서 나르시시즘의 영향이 상황적 특성이 강하고 명확한 정도에 의해 조절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상의 시나리오 상에서 현재 연인과의 친밀감은 낮고 새로 만난 이성의 매력도가 높은 조건(또는 친밀감은 높고 매력도는 낮은 조건), 즉 상황적 특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나르시시즘에 따른 외도 의도에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현재 연인과의 친밀감과 새로 만난 이성의 매력도가 모두 높거나 모두 낮은 조건, 즉 상황적 특성이 모호한 경우에는 나르시시즘이 높을수록 외도 의도가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도 의도에 대하여 개인 특성과 상황이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폭력이 명확한 경우와 장난과 폭력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로 구분하여 시나리오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시나리오

에 제시된 학교폭력의 인식에 대해 나르시시즘과 정체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는 것, 즉 학교폭력의 명확성(명확 vs. 모호) × 나르시시즘 × 정체성 발달 간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폭력과 장난의 구분이 명확한 상황에 비해 모호한 상황에서 나르시시즘이 학교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정체성이 조절하는가?
2. 정체성 발달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중 어떤 측면이 학교폭력 인식에 대한 나르시시즘의 영향을 조절하는가?

방 법

참여자 및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참여자는 전문 설문조사 업체를 통해 모집된 고등학생 300명으로, 온라인 설문 링크를 통해 설문에 응답하였다. 참여자들은 16세와 17세, 남성과 여성이 각각 절반의 비율로 구성되었으며 연구 참여 설명서를 읽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람만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먼저 나르시시즘과 정체성 발달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에 응답한 후, 두 편의 시나리오(연구 목적을 감추기 위한 허위 시나리오와 연구 시나리오)를 읽고 시나리오 별로 관련된 질문에 응답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감추고자 두 편의 시나리오는 ‘친구 사이의 의사소통 연구’라는 제목으로 제시하였고, 실험 제목과 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주된 시나리오(학교폭력 상황의 명확성 여부가 조작된 시나리오) 제시 전

학교 맥락과 관련된 한 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즉 모든 참여자들이 총 두 개의 시나리오를 읽은 후 각 시나리오마다 할당된 문항에 응답하였다. 설문 종료 후 참여자들은 연구의 실제 목적에 대해 안내받았다.

실험적 조작

시나리오를 통한 학교폭력 상황의 명확성 여부 조작

실제 학교폭력 사례 중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례를 각색하여 시나리오를 제작하였다. 시나리오는 친구 사이였던 A와 B가 사이가 멀어진 뒤, A가 B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상황을 묘사한다. 피해자 B가 가해자 A에게 사과를 요구할 때, A가 사과를 하지 않은 경우를 학교폭력 명확 조건으로, A가 사과를 하는 경우를 학교폭력 모호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시나리오상에서 학교폭력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일정 기간 또래로부터 소외되고 이에 더해 친구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본인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 2019). 명확 조건과 모호 조건은 동일한 학교폭력 상황을 포함하고 있지만, 모호 조건에서는 폭력행위에 대한 사과 요구가 있었을 때 곧장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폭력성에 대한 인식이 모호해지고 친구 사이의 장난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참여자들은 두 조건에 무선으로 할당되었으며 시나리오 전문은 아래와 같다.

고등학생인 A와 B는 같은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과거 1학년 시절, A와 B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 2명을 포함하여 4인조로 자주 어울려 다녔으나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기간 중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고 이후 겨울방학 동안 B가 어학연수를 다녀오면서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다. 게다가 2학년이 되면서 4인조 중 B만 다른 반이 되어 친구들과의 관계가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1교시 종료 후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4인조 2명이 서로 대화 중 B에 대해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중 한 명이 ‘중학교 때 B를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말하는 순간 A가 대화에 끼어들며 큰 소리로 “그래서 B 찼따 맞지?”라고 말하였다. 친구로부터 A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B는 점심시간에 교실로 찾아와 A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한 후 돌아섰다. 유명 브랜드인 메종키즈네를 입은 B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A는 친구들에게 “B는 메종키즈네 입어도 별로지 않냐? 역시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야”라고 이야기하였다. 곧바로 B는 A에게 다가가 사과하라고 말했고, A는 “농담인데 뭘 그러냐”라고 말했다. 이후 B는 교실로 돌아왔다(A는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라며 사과하였다. 이후 B는 교실로 돌아왔다).

측정 도구

나르시시즘

참여자들의 나르시시즘은 나르시시즘 성격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Raskin & Terry, 1988)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원래 40쌍의 진술문 중에서 자신을 더 잘

묘사하는 한 문항을 고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최근에는 나르시시즘을 묘사하는 문항만을 제시한 후에 Likert 형태로 응답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청소년 대상 연구들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곽진영, 하은혜, 2010; 이세연, 유미숙, 2010; 차재선, 임성문, 2016; 최민경, 김중남, 2010; Washburn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Gentile 등(2013)이 13개 문항으로 줄인 단축형 척도를 사용하였고, 한수정(1999)이 번역한 한국어판 문항을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이 자신을 얼마나 잘 묘사하는지 5점 척도로 응답하였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내 몸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한다.”와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나에게서 쉬운 일이다”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87이었다.

정체성

참여자들의 정체성 발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박선웅 등(2023)이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Self-Concept and Identity Measure; Kaufman et al., 2015)를 활용하여 개발한 한국어판 단축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확고한 정체성, 정체성 결여, 교란된 정체성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요인은 네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확고한 정체성 문항의 예시로는 “나는 항상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가 있고 정체성 결여 문항에는 “나는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내면이 비어있는 것 같다.”가 있다. 교란된 정체성은 “나는 내 자신이 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흉내낸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본 연

구에서 나타난 정체성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하위요인별로 각각 .83, .84, .72이었다.

학교폭력 인식의 관대함

참여자들은 시나리오를 읽고 학교폭력 인식의 관대함과 관련된 4개 문항(피해자의 불쾌감, 피해자의 스트레스, 가해자 언행의 폭력성, 가해자 언행의 허용 가능성)에 5점 척도로 응답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항에 동의함을 의미한다. 앞의 세 문항에 대해서는 역채점을 실시하였고 각 문항의 값을 평균 내어 학교폭력 인식의 관대함 변인을 형성하였다. 다만, 가해자 언행의 허용 가능성 문항을 포함하였을 때 학교폭력 인식의 관대함 변인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60인 반면, 해당 문항을 제외할 때 내적 합치도가 .72까지 올라 최종 자료 분석에서는 이 문항을 제외한 세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인식의 관대함 변인을 사용하였다.¹⁾ 설문에서 제시된 각 문항은 아래와 같다.

- (1) 피해자의 불쾌감: A의 말(B 찌따 맞지?, 메종키즈네 입어도 별로지 않냐?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야)에 B는 불쾌감을 얼마나 느꼈다고 생각하십니까?
- (2) 피해자의 스트레스: 자기 교실로 돌아온 B는 점심시간에 A와 있었던 일들로

1) 네 개의 문항을 평균 내어 분석할 경우, 유의성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유일한 예외는 학교폭력 상황의 명확성 여부 × 나르시시즘 × 교란된 정체성 간 삼원상호작용의 유의성이 $p = .023$ 에서 $p = .054$ 로 증가하여 경계선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변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단순 기울기의 유의성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인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가해자 언행의 폭력성: A의 말(B 찢따 맞지?, 매종키츠네 입어도 별로지 않냐?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야)이 얼마나 폭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가해자 언행의 허용 가능성: A의 말(B 찢따 맞지?, 매종키츠네 입어도 별로지 않냐?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야)이 친구 사이에서 얼마나 허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분석

나르시시즘, 정체성, 학교폭력 인식의 관대함 변인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를 산출하여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시나리오 조건별로 나르시시즘과 정체성 수준이 균등하게 분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나르시시즘과 정체성 발달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후 가설 검증을 위해 종속변인에

대한 삼원상호작용(학교폭력 상황의 명확성 여부 × 나르시시즘 × 정체성 발달)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에는 SPSS 27과 jamovi 2.4.1을 활용하였다.

결 과

표 1에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학교폭력 상황의 명확 조건과 모호 조건으로 할당된 참여자 간 나르시시즘과 정체성 발달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네 변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s < 1.07$, $ps > .29$. 이러한 결과는 조건별로 개인차 변인의 수준에서 차이가 없음을 가리킨다. 예측 변인들 간의 상관을 보면, 나르시시즘은 확고한 정체성($r = .51$)과 교란된 정체성($r = .15$)과는 정적, 정체성 결여($r = -.18$)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나르시시즘과 정체성이 학교폭력 인식의 관대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에 앞서 학교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1. 나르시시즘	-				
2. 확고한 정체성	.51***	-			
3. 정체성 결여	-.18**	-.43***	-		
4. 교란된 정체성	.15*	-.13*	.54***	-	
5. 인식의 관대함	.03	-.02	.01	-.08	-
평균	2.99	3.65	2.74	2.72	1.27
표준편차	0.67	0.78	1.00	0.84	0.42

* $p < .05$. ** $p < .01$. *** $p < .001$.

폭력 상황이 명확한 조건은 -1로, 장난과의 구분이 모호한 조건은 1로 코딩하였으며, 나르시시즘과 정체성 점수는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하였다. 학교폭력 상황의 명확성 여부 × 나르시시즘 × 정체성 발달 간의 삼원상호작용 분석은 정체성의 하위요인별로 시행하였다(총 3회). 정체성 결여와 교란된 정체성을 다룬 분석에서 삼원상호작용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확고한 정체성에서는 유의한 삼원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에 추후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B = -0.03, p = .719$).

학교폭력 인식의 관대함에 대한 상황의 명확성 여부와 나르시시즘, 그리고 정체성 결여의 관계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상황의 명확성 여부와 나르시시즘이 학교폭력 인식의 관대함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정체성 결여의 조절 효과를 살펴본 결과 삼원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B = 0.16, t = 2.43, p = .016$). 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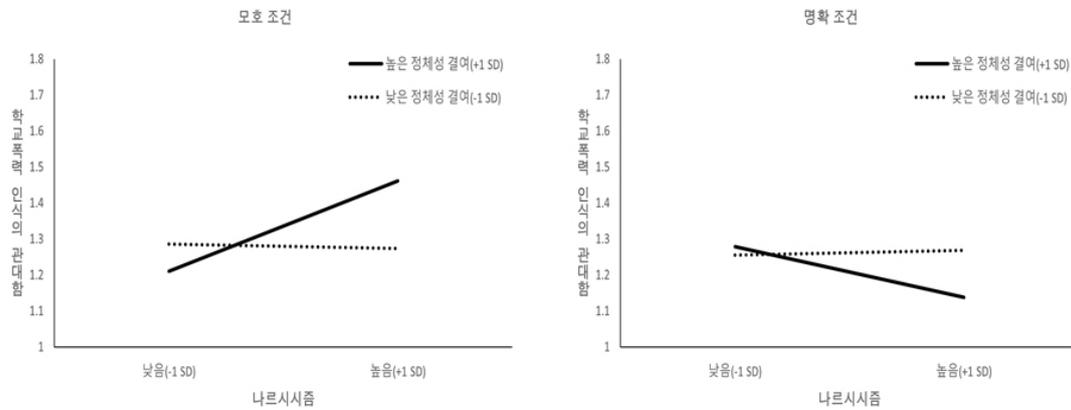
따라 상황의 명확성 조건별로 나르시시즘과 정체성 결여 간의 이원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그림 1). 명확 조건에서는 나르시시즘과 정체성 결여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호 조건에서는 나르시시즘과 정체성 결여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B = 0.10, p = .026$).

단순 기울기 분석은 정체성 결여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1 표준편차 위, 아래에서 각각 시행하였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모호 조건에서 정체성 결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나르시시즘과 학교폭력 인식의 관대함 사이에 양의 관계가 존재하였다($B = 0.19, p = .005$). 하지만 정체성 결여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나르시시즘과 인식의 관대함 사이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B = -0.01, p = .898$). 다시 말해, 자신의 내면이 비어 있다고 느끼는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나르시시즘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인식이 관대하였지만, 낮은 경우에는 나르시시즘 수준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학교폭력 인식의 관대함에 대한 상황의 명확성 여부 및 나르시시즘, 그리고 정체성 결여의 상호작용 효과

변인	B	SE	t	p
상황의 명확성 조작(명확 vs. 모호)	0.07	0.05	1.49	.136
나르시시즘	0.02	0.04	0.57	.570
정체성 결여	0.00	0.02	0.03	.977
상황의 명확성 조작 × 나르시시즘	0.14	0.07	1.86	.063
상황의 명확성 조작 × 정체성 결여	0.05	0.05	1.11	.267
나르시시즘 × 정체성 결여	0.02	0.03	0.63	.528
상황의 명확성 조작 × 나르시시즘 × 정체성 결여	0.16	0.06	2.43	.016

* $p < .05$. ** $p < .01$. *** $p < .001$.



주. 나르시시즘과 정체성 수준의 높고 낮음은 평균으로부터 1 표준편차 위와 아래에서 설정되었다.
 그림 1. 상황의 명확성 조건별 나르시시즘과 정체성 결여가 학교폭력 인식의 관대함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 인식의 관대함에 대한 상황의 명확성 여부와 나르시시즘, 그리고 교란된 정체성의 관계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상황의 명확성 여부와 나르시시즘이 학교폭력 인식의 관대함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교란된 정체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삼원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B = 0.18, t = 2.29, p = .023$). 이

에 따라 상황의 명확성 조건별로 나르시시즘과 교란된 정체성 간의 이원상호작용을 살펴 보았다(그림 2). 명확 조건에서는 나르시시즘과 교란된 정체성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호 조건에서는 나르시시즘과 교란된 정체성의 상호작용이 경계선상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B = 0.10, p = .070$).

단순 기울기 분석은 교란된 정체성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1 표준편차 위, 아래에서 각

표 3. 학교폭력 인식의 관대함에 대한 상황의 명확성 여부 및 나르시시즘, 그리고 교란된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

변인	<i>B</i>	<i>SE</i>	<i>t</i>	<i>p</i>
상황의 명확성 조작(명확 vs. 모호)	0.03	0.05	0.67	.504
나르시시즘	0.03	0.04	0.76	.447
교란된 정체성	-0.05	0.03	-1.55	.122
상황의 명확성 조작 × 나르시시즘	0.17	0.07	2.35	.020
상황의 명확성 조작 × 교란된 정체성	-0.11	0.06	-1.93	.055
나르시시즘 × 교란된 정체성	0.01	0.04	0.28	.783
상황의 명확성 조작 × 나르시시즘 × 교란된 정체성	0.18	0.08	2.29	.023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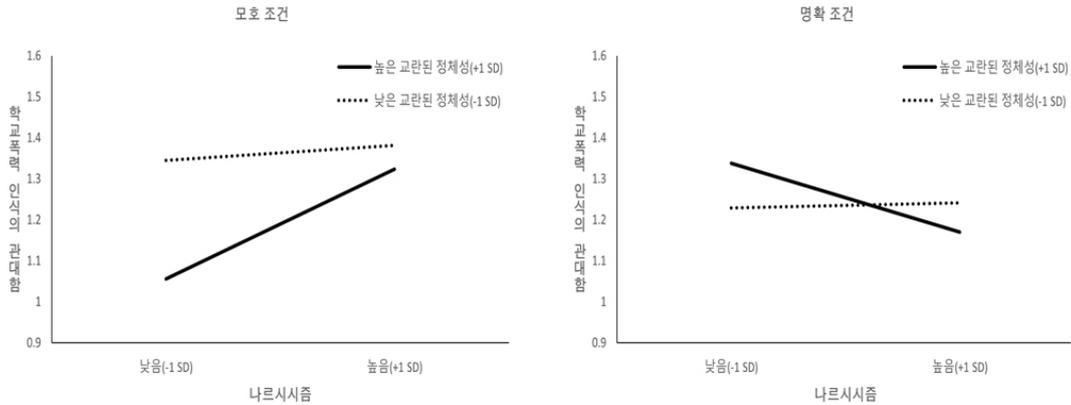


그림 2. 상황의 명확성 조건별 나르시시즘과 교란된 정체성이 학교폭력 인식의 관대함에 미치는 영향

각 시행하였다. 그림 2의 왼쪽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모호 조건에서 교란된 정체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나르시시즘과 학교폭력 인식의 관대함 사이에 양의 관계가 존재하였다($B = 0.20, p = .009$). 하지만 교란된 정체성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나르시시즘과 인식의 관대함 사이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B = 0.03, p = .671$). 다시 말해, 정체성의 교란 정도가 높은 사람들은 나르시시즘이 증가할수록 학교폭력 인식에 관대하였지만, 교란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나르시시즘 수준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학교폭력 여부가 명확한 상황에 비해 모호한 상황에서 나르시시즘이 학교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정체성이 조절하는지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정체성 발달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중 어떤 측면이 학교폭력 인식에 대한 나르시시즘의 영향을 조절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이 명확한 상

황과 장난과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으로 구분되는 시나리오를 참여자들에게 제시하고 학교폭력 인식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상황의 명확성 여부와 나르시시즘, 정체성 사이의 삼원상호작용이 유의하였는데, 이때 정체성의 영향은 정체성의 부정적 측면인 정체성 결여와 교란된 정체성에서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폭력과 장난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정체성 결여 수준이 높은 참여자들은 나르시시즘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해 관대한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이 명확한 조건에서는 나르시시즘과 정체성 결여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다. 교란된 정체성도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폭력과 장난을 구분하기가 모호한 상황에서 교란된 정체성 수준이 높은 참여자들은 나르시시즘이 증가함에 따라 관대한 학교폭력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폭력이 명확한 조건에서는 나르시시즘과 교란된 정체성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과 장난의 구분이 모호한 조건에서 나르시시즘과 학교폭력 인식의 관대함 간의 관계를 정체성이 조절할 것이라는 본 연구

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폭력과 장난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정체성의 부정적 측면과 나르시시즘의 상호작용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나르시시즘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정체성 결여와 교란된 정체성이 일부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먼저 모호 조건의 나르시시즘과 정체성 결여 간 상호작용에 대한 단순 기울기 분석에서(그림 1), 정체성 결여 수준이 높은 경우 나르시시즘과 학교폭력 인식의 관대함 사이에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모호 조건의 나르시시즘과 교란된 정체성의 상호작용에 대한 단순 기울기 분석의 경우에서도(그림 2), 교란된 정체성이 높은 경우 나르시시즘과 학교폭력 인식의 관대함 간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하지만 정체성 결여와는 다르게, 교란된 정체성이 높을 때에 비하여 낮을 때 전반적으로 관대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었다. 교란된 정체성은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이다(박선웅 등, 2023; Kaufman et al., 2015). 따라서 앞서의 결과는 환경에 따라 가치나 기준이 쉽게 변화하는 특성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와 사회의 분위기 및 예방 노력 등과 긍정적으로 반응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후적인 해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정체성 결여와 교란된 정체성 모두 정체성 발달의 부정적 측면이기는 하지만, 개념적으로 구분되고 또 본 연구에서 발견된 것처럼 경험적으로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두 변인 간의 차이를 정교화하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폭력 관련 연구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성격 특성으로서의 나르시시즘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 나르시시즘이 높을수록 분노 및 공격성과 실제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많고(Barry et al., 2015, 2017; Bushman & Baumeister, 1998; Donnellan et al., 2005; Fanti & Henrich, 2015; Sargeant, 2013), 정체성 수준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고 실제 가해 행동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ranch, 2023; Geng et al., 2022; Schwartz et al., 2015), 정체성과 유사한 자기개념 명확성과 나르시시즘의 상호작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게 나타났다(강선영, 홍혜영, 2012; 김혜경, 2010; 임지영, 2011; Stucke & Sporer, 2002).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향후 학교폭력 관련 연구에서 정체성과 나르시시즘을 주요 변인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정체성을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 위주로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온 탓에 학교폭력 연구에 있어 정체성은 주로 종속변인으로 다루어져 왔다(박재은, 2016; 이미희, 유순화, 2005; 이상진, 정옥분, 1999). 즉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 목격과 방관 등이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관점을 달리하여 스스로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삶의 방향성을 확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불안정하고 불명확한 정체성이 학교폭력 가해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학교 장면에서 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 상황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작성하되 학교폭력과 장난의 구분이 모호한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이 명확한 통제 시나리오

를 연구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학교폭력 인식의 차이가 폭력과 장난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만 나타났다. 이는 특정 행동이 폭력이고 범죄임을 명확히 인지한 경우에는 개인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지만, 명백하게 폭력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는 높은 나르시시즘과 낮은 정체성 수준이 상호작용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관대하게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체성의 긍정적 발달과 부정적 발달 모두를 측정하였다. 학교폭력 인식의 관대함에 대한 나르시시즘과의 상호작용은 정체성 결여와 교란된 정체성에서만 확인되고 확고한 정체성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체성의 부정적 발달이 주요 문제임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개인의 공격성에 대한 자기개념 명확성과 나르시시즘의 상호작용을 검증한 기존 연구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기개념 명확성 척도의 대부분이 역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높은 나르시시즘과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자기개념의 명확함에 기인한 것인지, 불명확함에 기인한 것인지 해석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자기개념 명확성 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자기개념의 불명확성에 따른 결과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우선,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사용된 학교폭력 인식의 관대함 점수의 평균이 예상보다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사례를 고르기 위해 실제 학교폭력 사례 중 물리적 폭력이 포함되지 않은 사례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 대부분이 시나리

오에서 제시된 행위가 폭력적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 및 학교에서 시행한 캠페인과 예방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증가하였음을 시사한다. 종속변인의 낮은 점수와 관련하여 바닥효과에 대한 우려와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가 공격성 등에 대한 나르시시즘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상호작용을 확인한 여러 선행연구(강선영, 홍혜영, 2012; 김혜경, 2010; 임지영, 2011; Stucke & Sporer, 2002)와 일치하는 방향성을 가지기에 바닥효과 때문에 나타난 인위적인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향후 장난과 폭력의 경계가 더 모호한 학교폭력 사례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인의 나르시시즘을 측정하기 위해 나르시시즘 성격 척도의 단축형 척도(Gentile et al., 2013)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다양한 국가에서 타당도 및 신뢰도가 검증되었으나(Doğan & Çolak, 2020; Henttonen et al., 2022; Pechorro et al., 2016), 한국에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하지만 단축형 척도의 타당도 등을 확인한 선행연구들에서 단축형 척도와 원본 척도와의 상관성이 .90 이상으로 나타났다(Brailovskaia et al., 2019; Packer et al., 2024),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 및 국외의 문화 차이 연구에서 단축형 척도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이은지, 2018; 이종민 등, 2018; Moon et al., 2016; Park et al., 2016; Pechorro et al., 2018; Sung et al., 2016).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공격성 등에 대하여 정체성과 유사한 변인으로 여겨지는 자기개념 명확성과 나르시시즘의 상호작용을 확인한 선행연구(강선영, 홍혜영, 2012; 김혜경, 2010; 임지영,

2011; Stucke & Sporer, 2002)와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기에 척도로 인한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국내의 학교폭력 연구에 있어서 나르시시즘의 영향을 다양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추후 단축형 척도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학교폭력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언어폭력 상황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확인하였다. 하지만 집단 따돌림, 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학교폭력은 여러 가지의 유형을 가지며 유형별 폭력의 심각성 정도도 다양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학교폭력 전반에 대한 개인의 인식으로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학교폭력 유형에 대한 추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의 관대함을 측정하였고 실제 학교폭력 가해 행동을 변인으로 측정하지는 않았다. 폭력 등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개인의 인식과 태도이기는 하지만(최운선, 2005; Huang 등, 2023; Josephson & Proulx, 2008; O'Keefe, 1998; Stith & Farley, 1993), 실제 학교폭력 가해 행동을 예측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평가와 책임 판단 등에는 개인의 학교폭력 참여유형이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참여유형은 가해자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따르지만 앞에 나서지는 않는 조력자, 주변에서 가해 행동에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강화자,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돕고 가해 행동 제지에 노력하는 방어자, 상황을 모른 채하거나 회피하는 방관자로 구분될 수 있고 이러한 참여유형에 따라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전원

희 등, 2015). 향후 나르시시즘과 정체성 수준이 시나리오 속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서 및 폭력성 등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자의 학교폭력 참여유형별로 구분하여 확인한다면 학교폭력 가해 인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행 학교 제도 내에서 개인의 정체성 발달을 위한 교육체계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정체성은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내적 목표나 가치를 반영하며, 이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학업성취에 대한 압박 때문에 청소년기에 정체성 형성이 어렵다(윤가영 등, 2022). 정체성 형성이 단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뿐 아니라 학교폭력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만큼, 학교 교육 시스템 내에서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가치와 기준에 대해 고민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목도되는 나르시시즘의 증가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나르시시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이선경 등, 2014), 이는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 관대한 학교폭력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양주미, 김봉환, 2017; 이지연 등, 2023; 황해인, 이승연, 2023). 학교폭력 가해자를 리더나 인기 있는 친구로 여기는 분위기를 개선하는 것은, 나르시시즘의 증가가 또래 인정이나 사회적 영향력 추구와 관련된 가해 인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키는 데 중요하다(Grapsas et al., 2020; Ojanen & Findley-Van Nostrand, 2020; Rodkin et al., 2013). 또한 학교폭력 가해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중 하나가 개인의 공감 능력이고

(김수진, 정종원, 2015; 김정옥, 김완일, 2019; Dinić et al., 2016),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도 동기가 있다면 타인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Hepper et al., 2014), 피해자가 경험할 정서에 대한 간접 체험 등 효과적인 교육을 추진 및 강화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학교폭력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선영, 홍혜영 (2012). 직장인의 자기애와 공격성의 관계: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 *통합치료연구*, 4(1), 25-51.
- 경찰청 (2022). 2022 경찰통계연보.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List.do?q_bbsCode=1117에서 2024. 1. 4. 자료 얻음.
- 고수연 (2023). 청소년의 자기애가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타인인정요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30(2), 135-161.
- 곽진영, 하은혜 (2010). 청소년의 자기애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7(3), 315-331.
- 교육부 (2022). 2022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2500&lev=0>에서 2023. 6. 17. 자료 얻음.
-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 (2019). 2019년 온라인행정심판 최신재결례. <https://www.simpan.go.kr/nsph/sph430.do>에서 2023. 6. 17. 자료 얻음.
- 김경은, 윤혜미 (2012).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 폭력용인태도와 사이버폭력가해행동의 관련성. *한국아동복지학*, (39), 213-244.
- 김세현, 허용희, 박선웅 (2017). 나르시시즘과 낭만적 관계에서의 외도 의도: 개인 × 상황 상호작용적인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2), 1-20.
- 김수진, 정종원 (2015). 초등학교폭력 가해 관련변인에 대한 국내연구 메타분석. *교육방법연구*, 27(4), 601-626.
- 김우준 (2013). Ordered Logit 모형을 활용한 학교폭력 원인분석 및 경찰대응 정책의 시사점. *한국범죄심리연구*, 9(1), 29-46.
- 김재우, 이지훈 (2017). 체육수업 참여 대학생의 실패공포와 스트레스가 자아정체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6(5), 83-97.
- 김재엽, 최선아, 임지혜 (2015). 지역사회 환경이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2(11), 111-135.
- 김정옥, 김완일 (2019).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공감능력과 학교폭력태도의 관계에서 학급응집력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6(1), 205-226.
- 김혜경 (2010). 청소년의 자기애 성향 및 자기개념 명확성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후년 (2022). 학교폭력의 실태와 그 대응방안. *인문사회* 21, 13(5), 165-175.
- 문현, 이다예, 김소을, 박수연, 박선웅 (2023). 상향사회비교와 부정적 자기평가의 관계에서 정체성 발달과 학년의 조절효과: 대학생 표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7(4), 553-572.
- 박상식 (2021).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제언. 법

- 학연구, 29(2), 1-26.
- 박선웅, 김혜민, 이준배, 문현 (2023). 한국어판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 단축형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7(2), 237-258.
- 박소윤 (2017).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또래애탁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애리, 김유나 (2023). 아동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초기 성인기 심리정서적 어려움 및 자살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30(1), 231-254.
- 박재은 (2016). 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지현, 임기호 (2021). 학교폭력 법률 및 정책의 변화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변화 고찰 및 개선방안. 교육발전, 40(3), 695-719.
- 배기동, 박수연, 이준배, 허유진, 박선웅 (2023). 나르시시즘과 성별에 따른 성폭력 인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8(2), 209-231.
- 백승혜, 현명호 (2008). 내현적,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적대감, 분노경험수준 및 분노 표현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1001-1017.
- 서민수, 박기영, 성현준 (2021). 학교생활기록부 가해 조치삭제 제도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식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소년보호연구, 34(1), 111-147.
- 성문주 (20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과 함의. 디지털융복합연구, 18(2), 121-126.
- 손지영 (2003). 공격신념과 정서조절능력이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정보처리과정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1(2), 96-110.
- 신다혜, 이인혜 (2021). 자기에와 공격적 운전간의 관계: 분노반추의 매개효과와 공감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연구와 실제, 7(3), 257-282.
- 신희영 (2019). 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행동 발달, 또래 상호 작용 및 사회적 영향의 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2(2), 1-21.
- 안지영 (2016). 초등학생의 학교폭력경험에 대한 폭력허용도, 공감능력 및 자아탄력성의 영향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6(10), 175-183.
- 안혜지, 이창배 (2023). 폭력허용도 인식이 데이트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심리연구, 19(3), 69-82.
- 양주미, 김봉환 (2017).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내외통제성 매개효과. 복지상담교육연구, 6(1), 167-193.
- 염혜선, 이은주 (2014). 청소년의 사회적 자아 존중감의 수준과 불안정성, 사회적 성취 목표, 공격성 및 사회불안의 구조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1), 207-226.
- 오정아, 박주현, 임소진 (2016). 부모 간 갈등과 아버지 양육행동 및 폭력허용도가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1(3), 565-582.
- 유선이 (2019). 초등학생의 공격신념과 공격성에 대한 융합 연구: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0(8), 327-334.
- 윤가영, 이준배, 박선웅 (2022). 지각된 부모의

- 학업성취압력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정체성 발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8(4), 529-553.
- 이덕난, 유지연 (2021). 코로나 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법제의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교육법학연구**, 33(2), 161-185.
- 이미희, 유순화 (2005). 학교폭력 가해경험 유무에 따른 자아정체감수준 및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차이. **교육연구**, 15, 51-68.
- 이상진, 정옥분 (1999).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경험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1(1), 73-87.
- 이선경, 팔로마 베나비데스, 허용희, 박선웅 (2014). 한국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 증가: 시교차적 메타분석(1999-2014).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3), 609-625.
- 이세연, 유미숙 (2010). 청소년의 자기에 및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7), 101-128.
- 이승현, 정제영, 강태훈, 김무영 (2014).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의 효과성 분석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66.
- 이은지 (2018). SNS를 떠나는 사람들 : 사용자의 특성과 SNS 피로감 중심으로. **한국HCI학회 논문지**, 13(1), 11-19.
- 이종민, 이지혜, 성용준 (2018). Facebook Fatigue: Narcissism, Reputation Concern, and Expectation of Others' Responses. **한국HCI학회 논문지**, 13(3), 35-42.
- 이준득, 이훈진, 서수균 (2007). 내현적/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자기개념 명료성과 부정적 정서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2), 463-477.
- 이지연, 김도예, 정유진, 이승연 (2023). 여자 청소년의 정서적 학대 피해와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의 관계: 내현적 자기에와 피해자 정의민감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30(10), 287-307.
- 이홍, 김은정 (2012). 청소년의 공격성 하위 유형에 따른 인지 및 정서 특성. **청소년학연구**, 19(1), 227-250.
- 임지영 (2011). 청소년의 자기에 및 자기개념 명료성과 분노행동양상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2(3), 305-325.
- 장미향, 성한기 (2007).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경험과 사회정체성 및 사회지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1), 77-87.
- 전수영 (2018). 한부모가정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이 자아정체성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19(2), 31-42.
- 전연희, 심은정, 이윤희 (2015). 중학생들의 또래 괴롭힘 참여유형에 따른 도덕 판단의 차이: 결과의 수혜자와 상황의 책임 소재를 바탕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1), 33-54.
- 정오영, 장석진 (2021). 미혼 성인남녀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비합리적 관계신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9(1), 453-463.
- 정유진, 유미숙 (2012). 한국판 청소년용 공격신념 척도 (K-BSA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399-417.
- 차재선, 임성문 (2016). 청소년의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에, 자기개념명확성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7(4), 231-258.
- 최민경, 김종남 (2010). 청소년의 자기에 성향

- 과 대인관계 문제 사이에서 탄력성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747-763.
- 최운선 (2005). 학교폭력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0(2), 95-111.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정민, 조민수, 홍세은, 박선웅 (2016). 나르시시즘과 의복 이미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0(2), 27-41.
- 황해인, 이승연 (2023).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 피해자 정의 민감성과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30(12), 299-324.
- Huang Xina, 신태섭, 최윤정, 추지윤, 신민경, 김예원 (2023).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대한 메타분석. *청소년학연구*, 30(7), 233-271.
- Ackerman, R. A., Witt, E. A., Donnellan, M. B., Trzesniewski, K. H., Robins, R. W., & Kashy, D. A. (2011). What does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really measure? *Assessment*, 18(1), 67-87.
- Andreas, J. B., & Watson, M. W. (2009).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on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ren's aggressive beliefs and their aggression trajectories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1(1), 189-205.
- Barry, C. T., Lui, J. H., & Anderson, A. C. (2017). Adolescent narcissism,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The relevance of socially desirable responding.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9(1), 46-55.
- Barry, C. T., Loflin, D. C., & Doucette, H. (2015). Adolescent self-compassion: Associations with narcissism, self-esteem, aggression, and internalizing symptoms in at-risk ma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7, 118-123.
- Berzonsky, M. D. (2003). Identity style and well-being: Does commitment matter? *Identit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Research*, 3(2), 131-142.
- Blinkhorn, V., Lyons, M., & Almond, L. (2016). Drop the bad attitude! Narcissism predicts acceptance of violent behaviou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8, 157-161.
- Bogaerts, S., Garofalo, C., De Caluwé, E., & Janković, M. (2021).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identity integration and self-control related to criminal behavior. *BMC Psychology*, 9, 1-11.
- Brailovskaia, J., Bierhoff, H. W., & Margraf, J. (2019). How to identify narcissism with 13 items? Validation of the German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13 (G-NPI-13). *Assessment*, 26(4), 630-644.
- Branch, R. (2023). *The Relationship Among Identity Development, Dark Personality, and Risk-Taking Behavior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Orlando, Florida).
- Bushman, B. J. (2018). Narcissism, fame seeking, and mass shooting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62(2), 229-241.
- Bushman, B. J., & Baumeister, R. F. (1998).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 219-229.
- Bushman, B. J., Bonacci, A. M., Van Dijk, M., & Baumeister, R. F. (2003). Narcissism, sexual refusal, and aggression: Testing a narcissistic reactance model of sexual coerc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5), 1027-1040.
-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tz, I. M., Lavalley, L. F., & Lehman, D. R. (1996).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41-156.
- Debusscher, J., Hofmans, J., & De Fruyt, F. (2017). Core self-evaluations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ask complexity, job resources, and performance.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6(3), 411-420.
- Dinić, B. M., Kodžopeljić, J. S., Sokolovska, V. T., & Milovanović, I. Z. (2016). Empathy and peer violence among adolescents: Moderation effect of gender.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7(4), 359-377.
- Doğan, U., & Çolak, T. S. (2020). Narsisistik Kişilik Envanteri-13 (NKE-13)'nin Türkçe Geçerlik ve Güvenirlilik Çalışması. *OPU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ety Researches*, 15(26), 4166-4184.
- Donnellan, M. B., Trzesniewski, K. H., Robins, R. W., Moffitt, T. E., & Caspi, A. (2005). Low self-esteem is related to aggression, antisocial behavior, and delinquency. *Psychological Science*, 16(4), 328-335.
- Dumas, T. M., Ellis, W. E., & Wolfe, D. A. (2012). Identity development as a buffer of adolescent risk behaviors in the context of peer group pressure and control. *Journal of Adolescence*, 35(4), 917-927.
- Erdem, A., & Şahin, R. (2017). Undergraduates' Attitudes toward Dating Violence: Its Relationship with Sexism and Narcissism.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6), 91-105.
- Fan, C. Y., Chu, X. W., Zhang, M., & Zhou, Z. K. (2019). Are narcissists more likely to be involved in cyberbullying? Examining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4(15), 3127-3150.
- Fanti, K. A., & Henrich, C. C. (2015). Effects of self-esteem and narcissism on bullying and victimization during early adolescenc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5(1), 5-29.
- Farrell, A. H., Volk, A. A., & Vaillancourt, T. (2020). Empathy, exploitation, and adolescent bullying perpetration: A longitudinal social-ecolog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42, 436-449.
- Forney, M., & Ward, J. T. (2019). Identity, peer resistance, and antisocial influence: Modeling direct and indirect causes of desistance.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Life-Course Criminology*, 5(1), 107-135.
- Funder, D. C. (2006). Towards a resolution of the personality triad: Persons, situations, and behavior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0(1), 21-34.
- Geng, J., Wang, Y., Wang, P., Zeng, P., & Lei, L. (2022). Gender differences between

- cyberbullying victimization and meaning in life: Roles of fatalism and self-concept clarit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7(19-20), 17157-17181.
- Gentile, B., Miller, J. D., Hoffman, B. J., Reidy, D. E., Zeichner, A., & Campbell, W. K. (2013). A test of two brief measures of grandiose narcissism: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13 and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16. *Psychological Assessment*, 25(4), 1120-1136.
- Grapsas, S., Brummelman, E., Back, M. D., & Denissen, J. J. (2020). The “why” and “how” of narcissism: A process model of narcissistic status pursuit.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5(1), 150-172.
- Gumpel, T. P., & Meadan, H. (2000). Children’s perceptions of school based violenc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0(3), 391-404.
- Hardy, S. A., Francis, S. W., Zamboanga, B. L., Kim, S. Y., Anderson, S. G., & Forthun, L. F. (2013). The roles of identity formation and moral identity in college student mental health, health risk behaviors, and psychological well be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9(4), 364-382.
- Henttonen, P., Salmi, J., Perakyla, A., & Krusemark, E. A. (2022). Grandiosity, vulnerability, and narcissistic fluctuation: Examining reliability, measurement invariance, and construct validity of four brief narcissism measures. *Frontiers in Psychology*, 13, 1-16.
- Hepper, E. G., Hart, C. M., & Sedikides, C. (2014). Moving narcissus: Can narcissists be empathic?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0, 1079-1091.
- Hoffmann, J., Roshdi, K., & Robertz, F. (2009). Targeted severe violence and rage in the schools An empirical study in the prevention of severe violent crimes. *Kriminalistik*, 63(4), 196-204.
- Huesmann, L. R., & Guerra, N. G. (1997). Children’s normative beliefs about aggression and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2), 408-419.
- Josephson, W. L., & Proulx, J. B. (2008). Violence in young adolescents’ relationships: A path model.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3(2), 189-208.
- Kamasz, E. (2014). Experiencing aggression and identity conflicts in adolescents. *Polish Journal of Social Science*, IX, 199-210.
- Kaufman, E. A., Cundiff, J. M., & Crowell, S. E. (2015). The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validation of the self-concept and identity measure (SCIM): A self-report assessment of clinical identity disturbanc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7, 122-133.
- Krettenauer, T. (2005). The role of epistemic cognition in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Further evid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 185-198.
- Langman, P. (2009). Rampage school shooters: A typology.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4(1), 79-86.
- Luyckx, K., Klimstra, T. A., Duriez, B., Van Petegem, S., Beyers, W., Teppers, E., & Goossens, L. (2013). Personal identity processes

- and self-esteem: Temporal sequences in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7(2), 159-170.
- Luyckx, K., Schwartz, S. J., Berzonsky, M. D., Soenens, B., Vansteenkiste, M., Smits, I., & Goossens, L. (2008). Capturing ruminative exploration: Extending the four-dimensional model of identity formation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1), 58-82.
- Marcia, J. E. (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551-558.
- McCann, J. T., & Biaggio, M. K. (1989). Narcissistic personality features and self-reported anger. *Psychological Reports*, 64(1), 55-58.
- McDade, R. S., King, K. A., Vidourek, R. A., & Merianos, A. L. (2018). Impact of prosocial behavioral involvement on school violence perpetration among African America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Immigrant and Minority Health*, 20, 7-13.
- Miller, T. W., & Kraus, R. (2008). School-related violence: definition, scope, and prevention goals. In Miller, T.W (Ed.), *School Violence and Primary Prevention* (pp. 15-24). Springer, New York, NY.
- Moon, J. H., Lee, E., Lee, J. A., Choi, T. R., & Sung, Y. (2016). The role of narcissism in self-promotion on Instagra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1, 22-25.
- O'Keefe, M. (1998). Factors mediating the link between witnessing interparental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3, 39-57.
- Ojanen, T., & Findley-Van Nostrand, D. (2020). Adolescent social goal development: Mean-level changes and prediction by self-esteem and narcissism.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81(6), 427-442.
- Ozimek, P., & Förster, J. (2017). The impact of self-regulatory states and traits on Facebook use: Priming materialism and social comparison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1, 418-427.
- Packer West, M., Miller, J. D., & Lynam, D. R. (2024). Comparing brief measures of narcissism—internal consistency, validity, and coverag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106(1), 83-99.
- Palmer, J. C., Komarraju, M., Carter, M. Z., & Karau, S. J. (2017). Angel on one shoulder: Can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ark Triad traits and 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0, 31-37.
- Park, S. W., & Colvin, C. R. (2014). Narcissism and discrepancy between self and friends' percept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82(4), 278-286.
- Park, S. W., & Colvin, C. R. (2015). Narcissism and other derogation in the absence of ego 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83(3), 334-345.
- Park, S. W., & Moon, H. (2022). Assessing identity formation via narratives. *Current Psychology*, 41(6), 4066-4078.
- Park, Y., Kim, S., Kim, G., Johnson, S. K., & Park, S. W. (2023). Testing a process-oriented model of identity development in South Korean young adults. *Current Psychology*, 42(7),

- 5447-5461.
- Park, S. W., Tignor, S. M., Joo, M. J., & Heo, Y. H. (2016). Accuracy and bias in self-perception of performance: Narcissism matters in Korea as well.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43*, 29-43.
- Paulhus, D. L., & Williams, K. M. (2002). The dark triad of personality: Narcissism, Machiavellianism, and psychopath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6*(6), 556-563.
- Pechorro, P., Gentile, B., Ray, J. V., Nunes, C., & Goncalves, R. A. (2016). Adaptation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mong a Portuguese sample of incarcerated juvenile offenders. *Psychology, Crime & Law, 22*(5), 495-511.
- Pechorro, P., Maroco, J., Ray, J. V., Gonçalves, R. A., & Nunes, C. (2018). A brief measure of narcissism among female juvenile delinquents and community youths: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13.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62*(8), 2292-2311.
- Raskin, R., & Novacek, J. (1989). An MMPI description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3*(1), 66-80.
-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components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5), 890-902.
- Rodkin, P. C., Ryan, A. M., Jamison, R., & Wilson, T. (2013). Social goals, social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middle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9*(6), 1139-1150.
- Sargeant, C. C. (2013).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urces of self-concept and forms of aggression in adolescenc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ampton).
- Schwartz, S. J., Hardy, S. A., Zamboanga, B. L., Meca, A., Waterman, A. S., Picariello, S., ... & Forthun, L. F. (2015). Identity in young adulthood: Links with mental health and risky behavior.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6*, 39-52.
- Stith, S. M., & Farley, S. C. (1993). A predictive model of male spousal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8*, 183-201.
- Stucke, T. S., & Sporer, S. L. (2002). When a grandiose self image is threatened: Narcissism and self concept clarity as predictors of negative emotions and aggression following ego 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70*(4), 509-532.
- Sung, Y., Lee, J. A., Kim, E., & Choi, S. M. (2016). Why we post selfies: Understanding motivations for posting pictures of oneself.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7*, 260-265.
- Thakkar, N., van Geel, M., Malda, M., Rippe, R. C., & Vedder, P. (2020). Bullying and psychopathic traits: A longitudinal study with adolescents in India. *Psychology of Violence, 10*(2), 223-231.
- Twenge, J. M., & Campbell, W. K. (2003). "Isn't it fun to get the respect that we're going to deserve?" Narcissism, social rejection, and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2), 261-272.
- Uysal, B., Stemmler, M., & Weiss, M. (2019). Antisocial behaviour and violent delinquency

- among boys with a migration background: A German pane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Developmental Science*, 13(3-4), 97-108.
- van Hoof, A., Raaijmakers, Q. A., van Beek, Y., Hale, W. W., & Aleva, L. (2008). A multi-mediation model on the relations of bullying, victimization, identity, and family with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 772-782.
- Washburn, J. J., McMahon, S. D., King, C. A., Reinecke, M. A., & Silver, C. (2004). Narcissistic features in young adolescents: Relations to aggression and internalizing symptom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 247-260.
- Waterman, A. S. (1984). Identity formation: Discovery or creation?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4(4), 329-341.
- Wright, M. F., & Li, Y. (2013). Normative beliefs about aggression and cyber aggression among young adults: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Aggressive Behavior*, 39(3), 161-170.
- Xia, Y., Li, S. D., & Liu, T. H. (2018).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family violence, adolescent violence, and adolescent violent victimization: An ap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cultural spillover theory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5(2), 371-386.
- Youn, I., & Atteraya, M. S. (2016). The Effect of Children's Exposure on Domestic Violence and Violence Transfer toward their Peers and Parents. *International Information Institute (Tokyo). Information*, 19(10A), 4399-4403.

원 고 접 수 일 : 2024. 03. 06.

수정원고접수일 : 2024. 04. 30.

최종게재결정일 : 2024. 05. 10.

The Effects of Narcissism and Identity on Perceptions of School Violence

Ki Dong Bae So Eui Kim Sun W. Park

Korea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narcissism and identity on the perceptions of school violence. The participants were 300 high school students who read one of the scenarios that described a situation of clear school violence or a situation of ambiguous distinction between violence and prank, and answered the questions that measured their perceptions of school violence. The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three-way interaction among narcissism, identity, and the clarity of school violence. Specifically, in the situation of ambiguous distinction between violence and prank, people with high levels of lack of identity and disturbed identity, which are negative aspects of identity development, were more tolerant of school violence as their narcissism increased. Using situations likely to occur in the school context, this study confirmed that identity, which is a major developmental task of adolescence, interacts with narcissism to influence the tolerance of school violence perceptions in the school context. Particularly, it is significant that we confirmed negative aspects of identity development, rather than positive ones, are more important factors in tolerant perceptions of school violence.

Key words : narcissism, identity, school violence, perceptions of school violence